

 기획재정부		보도설명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1. 10. 19.(화)
담당과장	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장 김태정 (044-215-4250)	담당자	김지민 사무관 (jeeminkim@korea.kr)
	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김민선 (02-2100-7736)		권인화 사무관 (ihkwon20@mofa.go.kr)
	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 장재량 (044-203-5930)		오승교 주무관 (skoh51@korea.kr)

**제목: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
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**

□ 2021.10.19일 한국경제 <[취재수첩] 다른 부처와 정보 공유 않는
기재부>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.

1. 언론 보도내용

- ① 산업부·외교부는 디지털세 협상 과정에서 기재부가 협상을
폐쇄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답답함을 표명
- ② 협상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엉뚱한 삼성전자·하이닉스가
디지털세 대상이 되었으며, 금융·에너지산업은 제외되고,
중국은 대상 기업이 없음
- ③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취합하지 않아 비슷한 이해관계가
있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회를 놓침
- ④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부담 증가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의 입장

- ①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세
국제 협상을 추진하였음

- 정부는 기재부 주관,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·과기부·국조실
등이 참석한 실무부처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
하여 국제 논의동향 및 협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
공동 논의하였으며,
 - 산업부·외교부 고위급 訪美 및 해외인사 면담시 디지털세
관련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진행
- ② 삼성전자 등이 디지털세 대상이 된 것 및 금융·에너지산업이
제외된 것은 부처간 협조 과정과 무관하며, 중국은 필라1
대상기업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님
 - ③ 간담회·서면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한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시
수렴하였으며,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채널을
통해 협의하며 협상에 대응함
 - 우선 정부는 기업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·업계와의 면담 등
산업계와 다각도·수시로 소통하며 디지털세 주요 내용을
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,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
업계 의견이 국제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
적극 대응해오고 있음
 - ④ 기재부가 구체적인 세부담 증가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
향후 세부담 수준을 변동시킬 수 있는 세부쟁점 논의가
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의 공개가 어렵기 때문으로, 협상의
경과 및 영향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음
- 정부는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
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임해 오고 있으며,
향후 남은 논의에도 상시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